

경남도, 2.8조 들여 '세계 1등 수소특화단지' 육성

수소생태, 핵심기술사업화 등 37개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설비 특화 최종목적지 조선·항공·방산 등 융합

경남도가 정부의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과제를 선도할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수소생태계 조성 ▲핵심기술 사업화 등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4대 전략과제를 담은 수소산업 육성계획(2023~2032년 1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및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라는 민선8기 도정과제가 이행 위해 도내 수소산업의 실태 진단과 중장기 육성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정의 수소산업 육성계획 비전은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으로 제조업 재도약 견인'이다.

그동안 경남테크노파크와 도내의 수소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60여 명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경남 수소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규 과제로 4대 전략 19개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수소산업 육성계획 발표

과제 37개 사업을 발굴했다. 발굴한 사업은 ▲(기반시설(인프라)) 산업생태계 확산 ▲(연구·개발(R&D)) 핵심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기업지원)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 ▲(보급) 수소사회 가속화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032년까지 10년간 약 2조8000억 원이다. 경남은 전국 2548개 수소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234개사(생산 37, 저장·운송 92, 활용 92, 서비스 13)가 밀집해있으나, 수소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수소인증센터가 없다.

이에 경남도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우선, 밀양에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원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창원을 중심으

로 김해·밀양과 연계하는 수소특화단지 총사업비 1조5500억 원을 조성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국수소기술원을 유치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수소생산기지, 액화수소플랜트, 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돼 왔으나, 핵심부품 수입 등에 따라 부품 국산화를 제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의 저장·운송·충전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선박, 항공, 방산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7623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발굴했다.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도입기를 지나 성장 초기 단계이고, 기업 지원도 아직

은 걸음마 단계로 전문인력 양성과 수소기업 홍보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수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정부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부터 수소분야를 전담하는 수소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기업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경남수소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매월 11일 (예비)수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수소전시회 참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소전문기업 지정 확대 등 수소기업의 공정기술을 지원해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한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4개소이고, 수소차는 2019년 396대에서 2400대로 증가했으나,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부터 서부권에 4개 수소충전소를 신규 구축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수소충전소 26개소를 구축하고, 수소트럭·광역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해 66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진주시는 길고양이 관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시행하는 중성화 사업 규모는 3000마리이며 1인당 5마리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관내 10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공용 포획틀을 대여해 현장에서 포획(사진 촬영)한 뒤 지정 동물병원으로 인계, 수술 후 처치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다시 방사하면 된다.

/진주(경남)=김영한 기자 metrobusan3@

문경시

생활폐기물 오전6시 이후 수거

경북 문경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을 오전 4~5시에서 오전 6시 이후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이 오전 6시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새벽시간 수거작업으로 청소 후 남은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도 작업시간 변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거작업이 늦춰진 만큼 출근시간, 상점 개점시간 이후에도 근처 배출장소의 생활폐기물들이 여전히 수거 중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

/문경(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상주시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펼쳐

상주시가 지난달 도에서 공모한 '2023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대학, 기업, 문화공간 등 청년 활동이 많은 지역 내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청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2020년 동 사업을 신청하여 청년 소통 및 활동 공간인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청년 프리마켓 및 청년 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청년의 수요에 맞춘 문화강연, 지역장인에게 배우는 원데이클래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무안군

오룡공원에서 '마켓 올래' 개최

전남 무안군이 오는 25일 무안군 일로읍 오룡공원에서 청년셀러 플라마켓 '마켓 올래(來)'를 개최한다.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는 판매자 100여 팀을 모집해 오룡공원 놀이터에서부터 참나무숲 공원 입구까지 400미터의 산책로에 음식, 생활, 패션, 미용, 체험 부스 등을 설치한다.

무안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과 무안플랫폼사업단에서도 참여하여 군 향토 농특산물로 지역 먹거리 존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비눗방울 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섬 지역' 관광개발 힘쓴다

전남도, 96억 투입 관광지 조성 여수, 완도, 신안 등 10개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가 우수한 섬 지역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섬 지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수한 지역 관광지역을 개발해 체험 및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는 '섬 지역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16억 증액된 96억 원을 들여 목포, 여수, 완도, 신안, 강진에 1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은 올해 착수하는 사업이다. 해상케이블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목화정원, 고하도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해 일제 강점기 조성된 해안가

절벽 인공 해안동굴 관람 시설을 구축한다. 자연경관 감상과 근대역사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이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연 친화적 출렁다리를 설치해 비렁길 해안 절경 체험을 위한 여수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과 장도 앞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갯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여수 장도 해양예술클러스터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섬 지역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기리고 민족 역사 의식을 고취할 완도 소안항일운동 섬테마공원, 섬 지역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안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강진에서 열린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참가 선수들이 대회 코스를 질주하고 있다. /강진군

동계훈련 메카... 명실상부 '강진'

8개 종목 3200명 선수단 방문

강진군이 겨울철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8개 종목 3,2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초부터 중등부 축구 16팀, 배드민턴 초·중·고등부 33팀, 탁구 80팀, 배구 8팀, 야구 8팀, 볼링 15팀, 테니스 10팀, 사이클 50팀 등 8개 종목 총 2,7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았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경제효과는 2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훈련팀 선수 1인당 하루 8만 5,000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도 열렸다. 자전거라이더들의 향연인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및 '2023년 마스터스 사이클 강진투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 학부모 72% '학업성취도 평가 필요'

교육공동체의 의견 조사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은 지난 2월 치른 학업성취도평가 진행 및 보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3003명과 교원 232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72.6%, 교원의 51.4%가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학력 진단 뒤 보정을 위한 부산

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의 도입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72.8%, 교원의 47.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평가 참여 의지 강화 등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실질적인 교사의 업무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공동체의 인식 전환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과 단위 학교 학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으로 학생들 학력을 보정해 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 광산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3대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지정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광산구는 '권리중심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릴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 증진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광주=김종식 기자 skjong1@